

본문: 창세기 3 장 1-13 절

제목: 보이지 않는 참신 (invisible, but real God)

1.

인생은 선물들로 가득합니다. 일용할 양식, 따뜻한 보금자리,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 직장, 취미생활, 여행 등등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여러 '관계(relation)'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관계들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고 서로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신뢰 관계는 그 어떤 선물보다 우리들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는 실제로 만져지는(tangible) 것들도 있고 만져지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론 인간으로서 갖는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이나 질병 그리고 죽음 같은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죠. 이런 한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한계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큰 선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은 우리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중요한 본질(essence)을 인간에게 심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교제하기 원하셨죠. 세상의 다른 신들이 인간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해 주십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유는 한계가 있는 자유였습니다. 동산 중앙의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확실한 바운더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비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관리하시고 통제하시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바운더리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들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이 성전으로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그곳에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을 찾아 오셨고 함께 교제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해가 지는 석양이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걷곤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습관적으로 찾아 오실 것을 알았고 미리 몸을 숨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연대가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큰 신학적인 주제들을 끌어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악의 기원(起源)이라든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등등의 굵직한 주제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이야기로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의 저자가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에는 플롯이라고 하는 짜임새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갈등의 해결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무언가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죠.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한 방해꾼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방해꾼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이 이야기에서 훼방꾼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뱀이 사용한 방해의 도구는 두려움과 거짓말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면서 인간을 혼란에 빠뜨려 놓았죠. 2-3 절의 하와의 대답을 보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뱀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흔들어서 놓았습니다. 4 절 말씀에 너희가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먹더라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열매를 따먹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뱀이 한 말이 맞은 면도 있었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생명 나무와 지식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거야"라고 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숨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추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가 죽음입니다.

3.

관계는 신뢰를 먹고 자라며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 장의 이야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금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뱀방꾼이었던 뱀이 인간과 하나님의 신뢰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 사용한 것은 두려움과 거짓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창세기 3 장 1 절)"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은 뭔가 여운을 주면서 그녀의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뱀은 속이는 자로서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열매를 먹음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이제 너희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대신 극복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뱀이 던진 질문들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을 덮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음성으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거죠. 뭔가 확실하게 만져지는(tangible) 존재를 의지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뱀이 더 신뢰감을 주었고, 눈 앞에 보이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열매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본문에서 눈과 시각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나무 열매를 보니', '눈이 밝아져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낮을 피하여' 등이 눈과 관련된 시각적 표현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형상과 만져지는 신들을 경계하십니다.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와 성공을 보장해주는 보여지는 신 또는 만져지는 신을 일컬어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신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담 당시에는 생명과 지식을 주는 나무 열매가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확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한계와 두려움을 이기에 해주는 것이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생명나무 열매는 건강으로 대체됐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식 또는 학력으로

대체되었죠. 건강은 우상이 되었고, 학력과 지식은 돈을 확보해주는 확실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돈만 있으면 학력과 건강 등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돈이 최고가 된 세상입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두려움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존재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지요. 돈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냐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할 때 인간의 삶에 두려움과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자기 중심성(egocentric)'이 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온통 '나' 밖에 없습니다. "내가.....듣고, 내가숨었나이다,내가 먹었나이다내가 먹었 나이다(11-13 절)". 이처럼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간은 자아(ego)를 의존하는 모드로 바뀌버리죠. 자아를 의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상이자 우상숭배입니다. 왜냐면 그 우상들만이 나의 욕망에 반응하며 만족을 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4.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절대자를 찾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들 그리고 고난과 직면하며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그러한 한계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과 한 번 직면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미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등등 그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나의 한계들을 통해 하나님께 포커싱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에게 온통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우리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손에 만져지는 확실한 것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의 삶에 일어나는 그 혼란들을 뭐라고 설명할거야? 하나님 말고 니가 중심인 삶을 찾아야지" 사단은 이런 말들로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인 devil 은 그리스어 diabolos 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어 Dia 는 사이(between)이라는 뜻이고 bolos 는 던지다(throw)라는 뜻의 ballo 라는 말에 뿌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의미는 "to

throw across” 즉 ‘사이를 갈라 놓는 자’입니다. 본문에서는 뱀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요. 태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온통 ego 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요.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요한일서 4:18).”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요한의 말과 정반대였죠. 완전한 두려움은 사랑을 내쫓고 욕망만 남기게 했습니다(월터부르그만, “Interpreation 창세기”, 한국장로교출판사 100 쪽). 인간이 한계 상황을 인식했을 때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의 한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tangible 한 거짓신을 버리고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한 참 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5.

제 얘기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2015 년에 20 년을 준비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1 학년 때 받은 소명을 실천할 부푼 꿈을 갖고 가족과 함께 중국 시안이란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 후 1 주일이 지나 셋째 아들 다울이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셋째 아이의 임신 사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제 왼쪽 귀 밑에 두툼한 혹이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시큰둥 했죠. 그런데 아내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니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하선 종양(parotid gland tumor)이라는 병인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아무개 교수님께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써칭 결과를 알려주더라구요. 어쨌든 다울이 출산을 맞춰 함께 귀국을 했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죠. 아내가 조사했던 그 교수님은 수술을 6 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한 달만에 그 교수님이 저를 수술하시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 기적은 나중에 말씀드리죠. 저는 그 교수님께 수술을 받았고 종양을

수술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2기 이하선암이라고 하더군요. 암이 몸에 퍼졌는지 수 많은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1 주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이라는 저의 한계를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죽음은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제 눈 앞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그때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매화가 피는 시절이기도 했죠. 날카로운 삭풍에 흔들리는 매화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는가?"라는 식귀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군요.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 저의 한계 상황과 마주하게 되니 하나님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읊처럼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 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욥기 1:21)"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구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율이 출산이 아니었으면 한국에 나갈 일도 없었을텐데 하나님이 다율을 주신 이유가 저를 살리실려고 그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소름이 돋더군요.

작년 12 월이었어요. 저희 가정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동안 험난한 미국 서부 유학생살을 잘 견뎌왔었습니다. 다행히 학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되는 시점이긴 했습니다. 학업도 끝나고 여로 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풀타임 사역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부목사 자리로 지원을 몇 군데 했는데 모두 거절되더군요. 저의 벗겨진 이마 때문에 그런지 담임목사님들이 저를 부담스러워 하셨나 봅니다. 저는 저의 커리어의 한계를 그 때 경험했습니다. 지금의 결혼 상대자인 지은님이 저를 소개팅에서 거절했을 때만하더라도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를 거절한 당신이 손해지 제가 손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저를 자꾸 거절하자 제가 손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 3 월에 제가 살고 있던 동네의 작은 교회에서 부목사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기대감을 갖고 면접을 하는데 50 대 중반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렇습니다. "김목사님은 나이로 보나 커리어로 보나 담임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겠어요. 미국의 시골이나 작은 도시의 담임목사로 지원해 보는 것은 어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야 이건 뽐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 면접이 끝나고 저는 저의 현실을 직시하고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를 찾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때마침 "다하나 교회"라는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저는 지금 다하나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하나 교회가 결정될 시점인 6 월 초에 저희는 기숙사를 빼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하나교회가 안되면

저희는 정말 짐싸고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학교에 작별인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 내렸더니 저의 어깨에서 날개가 돌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6.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여러 한계 상황과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작든 크든 모두가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한계들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한계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시험과 고난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위로를 선부르게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고 의지하며 순간의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귀를 가졌던 동산을 거닐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디에 있니 아무게야?" 하시며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데서 시작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건강한 삶을 갖고 더 좋은 커리어를 쌓는다고 인생이 의미롭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 인생의 중심에 이기적인 자아인 내가 있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허무할 뿐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인생이 의미로워지는 걸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도 작동할까?"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 첫 신뢰관계의 파괴가 에덴동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참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만져지는 거짓신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신에게 온전한 신뢰를 주며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